

2020년 제4차 대표협의체 서면심의 회의록 개요

회의일시	2020년 12월 9일(수) ~ 11일(금), 3일 간	진행방법	서면심의 (팩스, 이메일, 방문 제출)
주관부서	연수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회의기록	전담직원 정아영
참석자	위원장 : 고남석, 홍현웅 위 원 : 최윤희, 이민철, 강근형, 강병권, 고영철, 김문수, 김재옥, 라현준, 박길순, 박진하, 박희두, 방종설, 윤종만, 이승연, 장상덕, 장재오, 조복순, 주영신, 진유신, 최성남, 최임식, 한옥숙, 홍광희, 김창준, 공노석 < 위원정수 34명 중 27명 참여 >		
안 건	■ 1안건 2021년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회의내용	■ 1안건 2021년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검토 내용		결과
	1안건	2021년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가결
	☞ 서면심의 의견 및 답변		
	안건내용	1안건 2021년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안)	
	심의의견	1) 연수구 마을복지계획수립 지원사업의 경우, 2년차 사업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한계가 있었으나, 2021년에는 각 동에서 보다 주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최윤희 위원) 2) 2020년 연수구 마을복지계획수립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과정 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년도에는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현안 문제들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체감도 향상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봄. (라현준 위원) 3) 연수구 마을복지계획수립 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단 구성에 “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실무자도 참여하도록 권장함. (윤종만 위원) 4)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미추홀구의 경우 주거복지조례를 만들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 이를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에도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최초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향후에 연수구민 가운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최성남 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	1, 2, 3) - 연수구 마을복지계획수립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력 강화 및 주민주도성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1년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성, 컨설팅 및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2021년도 대표협의체 승인을 통해 실무분과에 “마을복지지원분과”를 신설하여 15개 동 마을복지계획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실무자의 경우 2020년에는 참여하고 있었으며 2021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단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음.	

		4) 미추홀구의 경우 '생생지락 미추'라는 주민포럼 (낙후된 미추홀구 원도심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 포럼)에서 진행한 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 건립을 목표로 별도의 포럼단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됨. 건축과 및 도시주택과에 해당 안전에 대해 건의하여 연수구 주거복지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 [도시주택과] 현재 추진 중인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안골마을 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 예정 ※ 집수리 가구: 152호, 사업기간: 2021~2022년 - [건축과] 현재 관내 청년 및 저소득가정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한 금액(시중 임대료의 50%)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전내용	기타의견
	기타의견	1)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년에는 서로 웃으며 볼 날을 기대하며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최윤희 위원) 2) 2020년 상황이 특별하기는 했으나 민간재원 후원사업이 상당히 많았고 협의체 간사가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재원이 들어오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디자인해서 사업물을 만들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후원자(처)가 사업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영역의 사업을 기관들이 역으로 제안할 수 있어서 효과·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박진하 위원) 3) 비대면·서면 회의와 심의들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처음이고 갑작스러웠을 텐데도 매끄럽게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는 상황이 안정되어 직접 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연 위원) 4) 내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순 위원) 5) 2020년 많이 힘든 해에 연수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에는 더 행복하고, 의미있고, 보람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홍광희 위원)
	의견에 대한 답변	1) 민간재원 후원사업의 경우, 2019년(현금기준 96,232천원) 대비 2020년(현금기준 269,346천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약 3배 이상의 후원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음. 2021년의 경우 2020년보다는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됨. 민간재원 공모사업 형식을 활용한 사업목록화 작업에 대해 주무부서와의 논의 후 차기 대표협의체 회의 전 보고하겠음. 2) (주무부서의견) 2020년 민간협력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 후원금 약 2억 7천여만원을 재원으로, 총 15개 사업을 진행하였음. 민간재원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사업물을 활용하여 지자체 및 간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민간기관에 도움을 주자는 의견에는 공감함. 그렇지만 올해 일견 넘치게 들어온 것 같은 민간후원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음. 사업 세부내역을 볼 때, 매년 지속사업(김장한마당, 키다리아저씨 펀드, 고독 zero 특화사업)에 이용된 예산이 약7,250만으로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하였고, 코로나-19로 지정기탁(코로나-19 관련 사업만 진행할 수 있는 후원금)된 사업(구호물품지원 1.2.3차, 방역물품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방역소독기 지원 1.2차, 필터마스크 지원, 냉방용품 지원)으로 1억5천5백만원을 사용하였음. 꼭 진행되어야만 했던 두 가지 유형의 사업만으로 2억2천만원이 넘는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되었음. 또한 4분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진행한 저소득층 가스레인지 교체사업의 경우 후원처가 가스와 관련된 사업만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된 예산이었음. 올해도 실무분과 회의 시 사업제안을 받았고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여 내년에도 각 협의체 회의 시 관련분야 필요 사업을 추천받고 진행 가능한 민간기관을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회의기록 확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장 홍현웅	